



8월 국내 광고경기 주춤 전월 대비 보합세

8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Korea Advertising Index)를 조사한 결과, 8월 종합 KAI는 98.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93.6), 케이블TV(96.8), 라디오(98.2), 신문(96.1), 온라인-모바일(111.7)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125.0), 여행 및 레저(121.4), 모바일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 서비스가 포함된 서비스(116.7) 업종에서는 광고비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반면, 가정용 전기전자(60.0), 수송기기(77.8) 등의 업종에서는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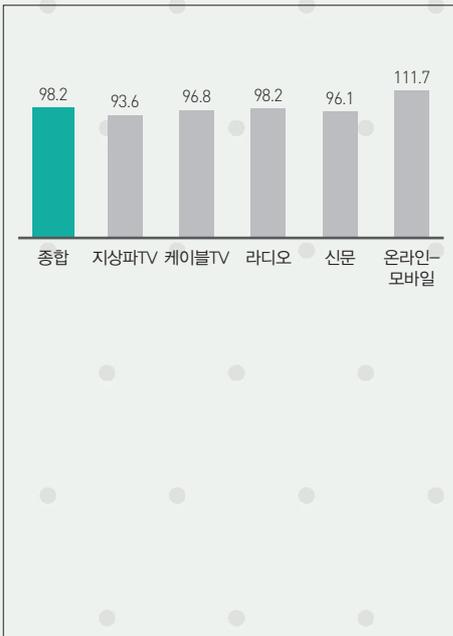
비 감소가 예상됐다.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KOBACO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광고산업통계정보시스템(<http://adstat.kobaco.co.kr>)이나, 스마트폰에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다운받으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K A A**

〈표 1〉 매체별 8월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8월 광고경기 전망

